

# 축 사

'22. 6. 17.(금) 14:30 / 은행회관 2층(국제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한국금융연구원을 비롯하여,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전문가 및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화두(話頭)인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Ⅱ.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일련의 이슈들을 보면,

- ① 내부자의 지분 대량매도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
- ② 대주주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 ③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지배권, 경영권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특성상,  
경영진, 지배주주, 소액주주, 외부 이해관계자 등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간 조정과 균형을 도모하는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 관한 논의는  
마땅히 쟁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할 것입니다.

### Ⅲ. 새 정부의 정책방향

---

이에, 새 정부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인수위, 5.3일)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6.16일)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정책세미나는  
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과제들 중  
다음 3가지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첫째,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영국, 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이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장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유진 파마(Eugene Fama)의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되므로,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거나  
주가조작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제들은  
시장의 공정성 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IV. 맺음말

---

여러분!

정부는 투자자를 위한 큰 나무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저명한 전문가 분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